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해설

[정답]

- 1.③ 2.① 3.① 4.④ 5.④ 6.⑤ 7.② 8.② 9.④ 10.②
 11.② 12.① 13.④ 14.② 15.① 16.④ 17.① 18.⑤ 19.④ 20.⑤
 21.② 22.③ 23.④ 24.④ 25.⑤ 26.⑤ 27.① 28.② 29.③ 30.①
 31.③ 32.② 33.⑤ 34.④ 35.② 36.⑤ 37.① 38.④ 39.① 40.③
 41.③ 42.④ 43.③ 44.② 45.⑤ 46.⑤ 47.④ 48.③ 49.⑤ 50.③

[1-5] 듣기

1. 이제 라디오 방송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 안녕하세요? ‘전문가와 함께 하는 삶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축가이신 김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 선생님 :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건축 분야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계단’과 ‘우리네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누워서 세상을 보던 아이가 기기 시작하면서 보는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입니다. 아이가 첫발을 내디디며 느끼는 것도 달라진 높이에서 보는 기쁨이죠.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계단도 이런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전해 주죠.

진행자 : 네. 그렇다면 계단이 우리 삶에서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김 선생님 : 아래층과 위층은 들어오는 빛, 경치, 심지어는 냄새까지도 다른 공간입니다. 계단은 이렇게 분리된 두 공간을 이어 주고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서로 다른 차원의 공간과 연결될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는 계단을 통해 새로운 세계와 교류하게 되고, 달라진 높이에서 세상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계단을 통해 (딩동)

1.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를 활용한 교훈의 추리)

정답해설 : 이 방송에서 건축가 김 선생님은 ‘계단’과 ‘우리네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먼저 누워서 세상을 보던 아이가 기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기쁨에 빚대어 ‘계단’도 이러한 기쁨을 준다고 이야기 한 다음, 계단이 분리된 두 공간을 이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계단을 통해 새로운 세계와 교류하고 달라진 세상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마지막에 이어질 말로 적절한 것은 ‘인간은 계단을 통해 새로운 세상과 만나고 소통하는 기쁨을 얻게 된다.’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방송에서 언급한 계단의 의미와 ‘세상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갖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② 방송에서 언급한 계단의 의미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다. ④ 방송에서 언급한 계단의 의미와 ‘끊임없

는 도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⑤ 방송에서 언급한 계단의 의미와 '일의 성패는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다.

2. 이번에는 탄소발자국에 대한 학생의 발표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처음 탄소발자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게 도대체 뭐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발표를 준비하면서 탄소발자국이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탄소발자국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발생시키는지를 계산하여 그것을 발자국으로 표시한 것이지요.

더 자세히 알아보까요? 탄소발자국은 무게 단위나 우리가 심어야 하는 나무 그루수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감자칩 포장지의 탄소발자국 마크에 75g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감자 재배에서부터 감자칩 생산까지 제품당 75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은 대략 50kg 정도인데, 이 정도의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서는 10그루의 나무를 새로 심어야 한다고 합니다.

탄소발자국 제도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이와 유사한 탄소은행, 탄소마일리지 제도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기 전에는 지구 온난화의 책임이 기업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제품을 쓰느냐,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지구 온난화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소발자국은 개개인에게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2. 추론적 사고(발표자의 의도 추리)

정답해설 : 발표자는 '탄소발자국'이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고 나서 탄소발자국의 개념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구 온난화의 책임이 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노력에 따라 지구 온난화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그런 의미에서 탄소발자국 제도가 개개인에게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치고 있다. 따라서 발표자는 탄소발자국 제도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함으로써 개인의 실천 의지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발표 내용에서 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③ 발표자는 탄소발자국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④ 발표자는 기업의 책임보다 개인의 관심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⑤ 발표자는 탄소 배출량 감축 기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3. 이번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 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서툰 것 같아. 참, 근데 넌 부탁할 때마다 친구들이 잘 들어주던데……. 무슨 비결이라도 있지?

여 : 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마음이 잘 표현되는 것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부탁할 때도 말하기 방법이 필요해.

남 : 그렇구나. 어떤 방법인데?

여 : 음……. 우선, ‘쉬운 부탁 먼저 하기’ 방법이 있어. 들어주기 쉬운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말하기 곤란한 좀 더 어려운 부탁을 하면, 승낙이 쉽게 이루어지기도 해. 다음은 이것과는 정반대의 순서로 하는 건데, ‘어려운 부탁 먼저 하기’의 방법이야. 어려운 부탁을 먼저 하고 상대방이 부담을 느낀다면 그때 들어주기 쉬운 부탁을 하는 거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남 : 그렇구나.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누구나 부탁도 하고 들어주기도 해야겠지. 그러니 부탁하는 말하기 방법도 배울 필요가 있겠어.

여 : 그런데, 부탁은 거절당할 때도 있잖아? 그럴 때 필요한 방법이 ‘호의 베풀기’야. 상대방이 내 부탁을 거절해도 서운해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라도 다시 부탁할 때 잘 들어주더라고. 네 번째 방법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기’야.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부탁을 하면 적어도 그중 하나는 들어주는 경향이 있거든. 마지막은 ‘공정 대답 유도하기’의 방법인데, 이건 ‘날씨가 좋지요?’와 같이 부정하기 어려운 친교적 질문들을 먼저 하는 거야. 부탁받는 사람이 ‘네’라는 긍정의 대답을 계속하다 보면, 이어지는 말에도 긍정적으로 수락하는 경향이 있거든.

남 : 부탁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

여 : 그럼, 내가 예를 하나 들 테니 어떤 방법인지 알아맞혀 볼래?

다음은 여학생이 든 사례를 대화로 들려드립니다.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A(여) : 부탁이 있는데, 공책 좀 잠깐만 보여 줄래?

B(남) : 그래. 여기 있어.

A(여) : 내가 필기 못한 게 너무 많네.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빌려 가서 보고, 내일 돌려주면 안 될까?

B(남) : 그래 내일 꼭 갖다 줘.

3.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여학생이 설명한 ‘부탁하는 말하기 방법’ 중 ‘쉬운 부탁 먼저 하기’ 방법은 들어 주기 쉬운 부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부탁을 하면, 승낙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학생이 든 사례에서 ‘공책을 잠깐 보여 주는 것’은 들

어 주기 쉬운 부탁이고 ‘공책을 빌려 가는 것’은 좀 더 어려운 부탁인데, 여학생은 쉬운 부탁을 먼저 한 다음 좀 더 어려운 부탁을 해서 남학생의 승낙을 얻어 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쉬운 부탁 먼저 하기’의 사례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③ ‘호의 베풀기’는 상대방이 내 부탁을 거절해도 서운해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나중에 다시 부탁할 때 잘 들어주도록 하는 방법인데, 여학생이 든 사례에는 이런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선택하도록 하기’는 두 가지 부탁을 해서 둘 중의 하나를 들어주도록 하는 방법인데, 여학생이 든 사례는 쉬운 부탁을 먼저 하고 어려운 부탁을 나중에 하는 방법에 해당하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⑤ ‘긍정 대답 유도하기’는 ‘날씨가 좋지요?’처럼 부정하기 어려운 친교적 질문을 먼저 함으로써 상대방이 ‘네’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계속하게 해서 부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여학생이 든 사례에는 친교적 질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4~5. 다음은 동아리의 면접 장면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부장 : 교지 편집부에 지원하신 분들이죠? 반갑습니다. 저는 편집부장입니다.
학생들 : 안녕하세요.
부장 : 먼저, 지원 동기를 알고 싶은데요?
남 : 예, 저는 평소 교지를 만드는 작업에 호기심이 많았고, 미래에 신문 기자가 되고 싶어서 지원하였습니다.
여 : 중학교 때 제가 쓴 글이 교지에 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직접 교지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원했어요.
부장 : 그렇군요.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동아리 활동이 자신의 성격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남 : 기사는 발로 뛰며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 : 전 궁금한 게 있으면 그것을 꼭 알아보고 싶어 하는 성격이에요. 우리 학교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알려 주는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부장 :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편집부원이 되면 어떤 활동을 할 계획입니까?
남 : 지금 당장 떠오르지는 않지만, 저는 뭐든지 다 열심히 할 겁니다.
여 : 전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직업에 대한 생생한 내용이 담긴 교지를 만들고 싶어요.
부장 : 다음 질문입니다. 만약, 교지에 ‘소설가와의 만남’이라는 특집을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남 : 일단 소설가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부딪쳐 봐야 알죠.
부장 : 어떤 소설가를 찾아가서 어떻게 부딪친다는 거죠?
남 : 그냥 요즘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작품을 쓴 소설가를 찾아가는 거죠.

여 : 저는 먼저 학생들이 좋아하는 소설가를 조사하여 학생들이 소설가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작성한 후 그 질문들을 인터뷰에 활용하겠습니다.

부장 : 어떤 기준으로 질문을 준비하실 건데요?

여 :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물어야겠죠. 소설을 쓰게 된 계기나 소설가를 지망하는 청소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등입니다.

부장 : 마지막 질문인데요, 만일 여러분이 저처럼 편집부장이라면 편집 방향을 정할 때, 부원들과 의견이 달라 조정이 쉽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남 : 저는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전체 의견이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부원들을 계속 설득하여 멋진 교지를 만들 겁니다.

여 : 편집부장은 교지 편집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원은 당연히 부장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부장의 직권을 행사하여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4. 비판적 사고(면접관의 평가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면접관의 질문 중 ‘교지에 소설가와의 만남이라는 특집을 만든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라는 네 번째 질문은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체계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 남학생은 ‘일단 부딪쳐 보겠다’는 식으로 대답했는데 이는 체계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는 대답이므로 ‘아니다’에 해당한다. 반면 여학생은 ‘먼저 학생들이 좋아하는 소설가를 조사하여 학생들이 묻고 싶은 질문들을 작성한 후 그 질문들을 인터뷰에 활용하겠다’는 식으로 대답했는데 이는 상당히 체계적인 방식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렇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남학생은 ‘아니다’, 여학생은 ‘그렇다’에 표시되어야 맞는데, 선지 ④번은 둘 다 ‘그렇다’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가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남학생은 ‘평소 교지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았고 장차 신문 기자가 되고 싶어 지원했다’고 대답했고, 여학생은 ‘중학교 때 제 글이 교지에 실린 적이 있는데, 그 때부터 교지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 지원했다’고 대답했다. 두 학생 모두 지원 동기가 뚜렷하므로 둘 다 ‘그렇다’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②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남학생은 ‘저의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고, 여학생은 ‘궁금한 게 있으면 꼭 알아보고 싶어 하는 성격’이라고 대답했다. 두 학생 모두 동아리 특성에 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 둘 다 ‘그렇다’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③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남학생은 ‘당장은 떠오르지 않지만 뭐든지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즉 ‘아니다’)에 해당한다. 반면에 여학생은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직업에 대해 생생한 내용이 담긴 교지를 만들고 싶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활동 계획이 구체적인 경우(즉 ‘그렇다’)에 해당한다. ⑤ 마지막 질문에 대해 남학생은 ‘시간이 걸려도 부원들을 계속 설득하여 멋진 교지를 만들겠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부원들과 화합하려는 자세를 드러낸 경우(즉

‘그렇다’)에 해당한다. 반면에 여학생은 ‘부원이 다르지 않으면 부장의 직권을 행사하여 일을 진행하겠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부원들과 화합하려는 자세와는 거리가 먼 경우(즉 ‘아니다’)에 해당한다.

5. 비판적 사고(면접관의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해설 : 면접관은 지원 학생들에게 다섯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 중 네 번째 질문의 경우 ‘일단 부딪쳐 봐야 알죠’라는 남학생의 대답에 대해 면접관은 ‘어떤 소설가를 찾아가서 부딪친다는 거죠?’ 라고 보충 질문을 했고, ‘먼저 묻고 싶은 질문을 작성한 후 인터뷰에 활용하겠다’는 여학생의 대답에 대해서도 면접관은 ‘어떤 기준으로 질문을 준비하실 건데요?’ 라고 보충 질문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면접관은 지원자에게 보충 질문을 하여 발언을 구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지원자들이 핵심에서 벗어난 대답을 하지 않았고, 면접관이 그런 대답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도 않았다. ② 면접관은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지 않았다. ③ 면접관은 지원자의 답변을 요약하지 않았다. ⑤ 면접관은 질문을 간단하게 했고 질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물의 상태 변화 현상에서 지적 성숙의 과정을 유추해내는 문제이다. ⑤에서는 지적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지식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물의 상태 변화 현상에서 ‘지식’에 대응하는 요소는 찾아낼 수 없고, 그래프의 내용에서도 ‘지식의 핵심을 파악’한다는 내용 요소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⑤는 적절한 연상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피하기] ① 지적 성숙(온도의 상승)을 이루기 위해 꾸준한 노력(지속적인 가열)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그래프에서 유추할 수 있다. ② 지적 성숙(온도의 상승)이 단계적으로(얼음에서 물로, 물에서 수증기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그래프에서 유추할 수 있다. ③ 노력을 계속해도(계속 가열하여도) 지적 성숙(온도의 상승)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때가 있을 수 있음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높은 단계의 지적 성숙(높은 온도의 상태)은 이전 단계(낮은 온도의 상태)보다 더 많은 노력(가열)이 필요함을 그래프에서 유추할 수 있다. **정답 ⑤**

7. 창의적 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학급 회의를 통해 도출된 표현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심을 드

러낼 것. (2) 현수막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할 것. (3) 자연물에 비유할 것. 이 셋을 다 충족하는 표현은 ②이다. 조건 (1)을 충족하는 표현은 ‘한 그루 두 그루 모여 초록 숲’이며, 조건 (2)를 충족하는 표현은 ‘초록 숲’, ‘신록처럼 넘실대는’이다. 그리고 조건 (3)을 충족하는 표현은 ‘초록숲(=급우들)’, ‘초록처럼 넘실대는(=우리들의 함성)’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색채 이미지의 특성이 활용되었으나, 다른 조건들은 충족하지 못한다. ③ ‘새’라는 자연물에 빗댄 표현이 있기는 하나, 색채 이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협동심을 드러내는 내용 또한 담고 있지 않다.

8. 비판적 사고(개요 수정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은 ‘교복 착용의 실태’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수정·보완 의견]의 내용은 ‘실태를 구체화하여 제시’이다. ㉡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교복 착용의 실태(㉠)’에 ‘교복 구입에 따른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자고 하였는데 이는 실태의 구체화로 보기 어렵다. ‘교복 구입의 경제적 부담’은 ‘교복 착용의 실태’를 구체화한 것이라기보다는 논점에 어긋나는 내용의 진술에 해당한다. **정답 ②**

9. 추론적 사고(자료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④의 활용 방안의 경우, 학생들이 처음 교복을 구매할 때 상표를 선호한다는 내용을 자료 (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학생들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개성적 욕구가 있다는 내용을 자료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두 가지의 정보를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기는 하나, 이 두 정보를 연관 짓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상표’를 의식하는 것은, 자료의 내용 가운데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에 가까우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개성에 대한 욕구와는 거리가 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③ ‘디자인’과 ‘유행’은 학생의 미적 감각과 연관이 되므로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⑤ 소속감 형성과 개성의 표현이라는 성격이 다른 요소가 결합된 방안이다. 소속감 형성에 관한 내용은 (나)에서, 개성의 표현에 관한 내용은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비판적 사고(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앞선 문장으로 볼 때, ㉠이 들어 있는 문장은 도서관의 이름을 ‘슬기그림’으로 한 이유를 밝히는 문장이다. 따라서 ㉠의 ‘터전입니다’는 ‘터전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등이 적절하지, ‘터전이라는 뜻입니다’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의 앞 문장이 도서관 이름을 선정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에 해당하므로, ㉠의 자리에 ‘그래서’를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③ ㉡ 이전에 ‘강’은 도서관의 이름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언급되었으므로, 강이 인간에게 주는 피해를 설명하는 ㉡은 도서관의 이름을 설명하는 이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을 삭제하자는 방안은 적절하다. ⑤ ㉢의 주어는 ‘많은 학생들이’이며, ‘갈증이 해소되어 지기를’이 주어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으므로, ‘갈증을 해소하기를’로 고쳐야 한다는 방안은 적절하다.

11. 어휘·어법 (관용 표현의 의미 구조)

정답해설 : ㄴ(뒷북을 치다)과 ㄹ(무릎을 치다)의 서술어는 둘 다 ‘치다’이다. 그런데 ㄴ에서는 의미 쏠림이 발생하고 ㄹ에서는 의미 쏠림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로 볼 때, 서술어 ‘치다’는 의미 쏠림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용 표현의 서술어를 보면 의미 쏠림이 발생할지 알 수 있다고 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③ ‘바가지’를 씌우다의 ‘바가지(터무니없이 많은 요금이나 물건 값)’와 ‘바가지를 긁다’의 ‘바가지(아내가 남편에게 늘어놓는 불평이나 불만의 소리)’는 그 의미가 서로 다르며, 의미 쏠림 이후에도 이러한 의미 차이는 유지된다. ④ ㉠의 ㉡은 ‘닭 잡아먹고(A) 오리발을 내밀다(B)’이며 ㉢는 ‘오리발을 내밀다’이다. 요소의 생략 과정에서 ‘오리발을 내밀다(B)’만 남았으므로 ‘B’로 의미 쏠림이 일어났다고 본 것은 적절한 이해에 해당한다.

12. 어휘·어법 (인용 발화의 개념 적용)

정답해설 : <보기>의 첫 문장에 따르면 ‘인용 발화’의 기본적인 특징은 ‘남에게 전달하는 말’이다. 그런데 ①의 경우 자신의 기쁨을 청자에게 보고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여기에 쓰인 ‘-답니다’의 형태는 인용 발화의 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의 ‘-답니다’는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 주는 합쇼체의 종결 어미’이며, 나머지 인용 발화를 의미하는 형식 ‘-답니다’는 ‘-다고 합니다’의 준말 형태이다. 정답 ①

[13-17] 인문, ‘동양에서의 천(天) 개념의 변천 과정’

지문해설 : 동양에서 다양하게 이해되었던 ‘천(天)’의 개념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천(天)’의 개념이 ‘자연천(自然天)→상제천(上帝天)→의리천(義理天)’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각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 이유와 그 개념이 당대인의 삶에 미친 영향 또한 밝히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동양에서의 ‘천(天)’ 개념의 변천은 그 개념이 지닌 한계가 보완되며 인간 삶의

중요한 근거로서의 위상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연천(自然天)’의 개념 하에서 인간은 도덕적 자각을 할 수 없었으며 자연 변화의 원인과 의지를 알 수 없었는데, 이는 ‘상제천(上帝天)’의 개념이 출현하는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이끌어 내는 ‘의리천(義理天)’은 ‘상제천(上帝天)’이 억압의 성격을 나타냄에 따라 출현한 것이다.

[주제] 동양에서 ‘천(天)’ 개념이 변화해 온 과정과 그 양상

13.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둘째 문단에 따르면 천은 자연현상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자 가장 크고 뚜렷하게 파악되는 현상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의하면 천은 인간의 도덕성과 규범의 근거로 인식되어 왔다. 즉 천은 인간에게 자연현상이자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었던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천명(天命)’은 ‘상제천(上帝天)’ 개념 하에서 가치중립적이었던 천이 의지를 가진 절대적 권능의 존재로 수용되면서 등장하였다. ② 동양에서는 현실 세계 안에서 인간의 삶을 모색하는 데에 관심을 두었다. 그에 따라 동양에서 천은 현실 세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③ ‘자연천(自然天)’ 개념에서는 천을 자연적 현상과 작용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⑤ ‘내면화된 천’은 ‘상제천(上帝天)’이 아니라 ‘의리천(義理天)’과 관계가 깊다.

14. 사실적 사고(핵심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동양에서 ‘천(天)’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자연천(自然天)→상제천(上帝天)→의리천(義理天)’의 과정으로 ‘천(天)’ 개념이 바뀌어 왔음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 ‘개념의 의미 변천’이다. **정답 ②**

15. 비판적 사고(정보 이해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자연천(自然天)’ 개념 하에서 인간은 도덕적 자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변화의 원인과 의지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인간은 ‘천(天)’을 여러 자연신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신성한 대상으로 숭배했다. 이는 ‘자연천(自然天)’ 개념 하에서 인간이 자율적 존재가 아니었음을 나타낸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상제천(上帝天)’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력 행사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인간은 타율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 ③ ‘의리천(義理天)’ 개념에서 천은 도덕 및 인간 본성과 결부됨에 따라 인간 내면에 있는 천으로서의 본성을 잘 발휘하면 도덕을 실현함은 물론,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④ 상제로서의 천 개념이 개방되면서 ‘의리천(義理天)’ 개념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천이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이끌어 내는 기반이 되었다. ⑤ 천명 의식이 수

정되면서 ‘의리천(義理天)’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타율성은 축소되었다.

16.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개념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ㄱ은 천을 자연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예이므로 ‘자연천’에 해당한다. 천의 작용 면에서 천을 파악한 ㄴ도 역시 ‘자연천’에 해당한다. ㄴ에서 ‘그와 같이 되도록 주재하고 운용하는 존재’는 ‘상제’에 대응되므로 ㄴ은 ‘상제천’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ㄷ은 수정된 천명 의식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의리천’에 해당한다.
정답 ④

17. 어휘·어법(어휘의 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은 ‘드러나는 기미, 경향, 느낌 따위가 보통 정도보다 뚜렷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①이다. ①의 ‘질어’는 폭우가 내릴 기미가 뚜렷해졌음을 의미한다.

[오답파하기] ② ‘액체 속에 어떤 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 진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예이다. ③ ‘안개나 연기 따위가 자욱하다.’는 의미이다. ④ ‘일정한 공간에 냄새가 가득 차 보통 정도보다 강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⑤ ‘그림자나 어둠 같은 것이 아주 뚜렷하거나 빛깔에 아주 검은색이 있다.’는 뜻이다.

[18-20] 과학, ‘연니(軟泥)의 유형과 분포’

지문해설 : 생물의 골격과 그 파편 등에 의해 생성되는 생물기원퇴적물인 ‘연니(軟泥)’의 유형과 그에 따른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연니가 형성되는 과학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연니를 ‘석회질연니’와 ‘규질연니’로 나누어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두 연니의 특성을 제시한 후 그에 따라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고 있으며, 마지막 문단에서는 연니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 연니의 유형에 따른 특성과 연니 연구의 의의

18.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심해저에서 연니를 형성하지 않는 점토류는 1,000년에 걸쳐 2mm 정도가 퇴적되는 데 비해, 연니는 1,000년 동안 약 1~6cm가 퇴적된다. 즉 연니가 심해저 점토류보다 5배에서 30배에 이를 정도로 빠른 속도로 퇴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니의 퇴적 속도가 심해저 점토류의 퇴적 속도보다 느리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연니는 주로 죽은 부유생물의 껍질, 골격 등과 바람이나 유수에 육지로부터 멀리 운반된 점토류가 섞여 형성된다. ② 코콜리스나 유공충과 같은 생물체 잔해가 적어도 30% 이상 포함된 퇴적물이 석회질연니이므로 유공충이 40% 포함되어 있다면 석회질연니에 해당한다. ③ 표층수에 서식하는 부유생물의 양이 많을수록 연니는 많이 퇴적된다. ④ 규질연니는 탄산염이 녹는 수심보다 깊은 속에 서도 발견된다. 탄산염이 녹는 수심은 탄산염보상수심보다 깊은 곳이다.

19. 사실적 사고(핵심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둘째 문단에서 연니를 ‘석회질연니’와 ‘규질연니’로 유형을 나누고 있으며(ㄴ), 셋째 문단과 넷째 문단에서 유형에 따라 연니의 지리적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다(ㄷ).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연니 연구의 효용성이 제시되어 있다. **정답 ④**

20.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의 (가) 지점은 수심이 5,000m이므로 탄산염보상수심보다 깊은 곳이다. 탄산염보상수심보다 깊은 곳은 탄산염 성분으로 구성된 생물체의 골격이나 잔해가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석회질연니는 분포하지 않고 규질연니가 분포한다. 그리고 (가) 지점은 표층 수온이 낮은 곳이므로 용승이 일어나고 차가운 해류가 흐르는 남극 부근의 C이다. (나) 지점은 탄산염보상수심보다 낮고 탄산염 성분의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므로 석회질연니가 분포하는 곳이다. 따라서 (나) 지점은 대서양 중앙 부분인 B이다. 마지막으로 (다) 지점은 표층 수온이 높고 표층수에 방산층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태평양의 적도 부근인 A이다. **정답 ⑤**

[21-26] 시가 복합

(가) 이육사, ‘소년에게’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소년의 당당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소년의 순수한 모습은 박꽃에 비유하고 있고, 당당한 소년의 모습은 큰 여울을 만들어 흘러가는 강물의 흐름과 분수 있는 풍경 속에 동상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소년의 기상은 서풍을 맞고 자연을 노래하는 모습으로, 소년의 강한 의지는 추위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힘이 넘치는 소년의 모습에서 시대 현실에 굴하지 않는 육사의 당당함이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저항 시인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육사의 시 중에서 그의 유년 시절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준마를 달리고 곧은 기운을 드러내며 추위 속에서도 당당한 소년의 모습에서 우리 민족의 강인함을 신뢰하는 육사의 믿음을 엿볼 수 있다.

[주제] 소년의 당당한 모습

(나)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작품해설 : 이 시는 추운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내는 나무의 강한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다. 이를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화자는 추위를 이겨내는 나무의 강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겨울 나무와 봄 나무의 대조적 상황으로 주제의식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작품을 시대 상황과 연관시켜 본다면 겨울은 나무를 억압하는 고통과 시련의 시기이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강한 의지로 이를 이겨내는 나무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민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나무의 생명력

(다) 이현보, ‘어부단가’

작품해설 : 이 작품은 고려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부가’를 개작한 것으로 자연을 벗하며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의 한가한 삶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 등장하는 어부는 실제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는 진짜 어부로 보기보다는 속세를 떠나 자연과 더불어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선비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수에서 어주(魚舟)에 누워 있으면서도 세상사에 대한 관심을 끊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제] 자연에 은거하는 어부의 생활

21.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소년의 당당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마지막 연의 ‘별들 춤다 얼어붙고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에서 추위에 당당히 맞서는 소년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의 추위는 시대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 (나)는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싹을 틔우며 꽃을 피우는 나무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겨울은 암울한 고통의 시대 현실이며, 이를 이겨내는 나무는 시대 현실에 맞서 자유를 성취해 내는 민중들의 모습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 (다)의 화자는 자연에서 한가로운 삶을 지내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한가로움은 녹수와 청산을 바라보고, 흰 달을 바라보며, 어부 생활을 하며 바라보는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다)에서만 자연과 화자의 물아일체를 엿볼 수 있다. ④ (나)에서 겨울 나무와 봄 나무의 대비는 사물 자체의 속성을 대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의 모습을 담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박꽃은 소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아침 이슬, 진주, 연꽃, 맑은 녀’의 시어로 볼 때 순수한 모습을 빗댄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의 꽃은 겨울의 추위를 나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고 싹을 틔워 피워낸 것이기에 강한 생명력을 함축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차디찬’은 아침 이슬을 수식하고 있기에 ‘맑고 깨끗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영하 13도’는 겨울의 추위이기에 시련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② (나)에서는 고난과 시련의 추위에 온 몸으로 대결하고자 하는 나무의 숭고함을 엿볼 수 있으나, (가)의 ‘녘’은 숭고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 않다. ④ (가)의 ‘사랑했거늘’은 화해라기보다는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소년의 끈은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⑤ (나)의 ‘들이받으면서’는 나무가 추위를 이겨내고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거부라기보다는 당당한 수용에 가깝다.

23. 비판적 사고(두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 비교)

정답해설 : (가)와 (다) 모두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화자의 사고 전개 과정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큰 강이 목 놓아 흐르고 여울이 돌에 부딪치는 것을 통해 청각적 이미지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다)에는 자연의 풍경이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② (다)는 4음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기에 음악적 리듬감이 두드러진다. (가)에서는 한 연이 3행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규칙성은 있으나, 음보가 일정한 규칙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③ (다)는 2수의 초장, 3수의 초장, 4수의 초장 등에서 대구의 표현이 드러난다. ⑤ (가)의 2연 ‘자랐어라’, 5연의 ‘서 봐도 좋다’, 7연의 ‘미친들 어떠라’에서 영탄의 어조를 엿볼 수 있다. (다)에서는 각 수의 종장에서 영탄의 어조를 느낄 수 있으며 특히 2수와 4수에서 강하게 느낄 수 있다.

24. 비판적 사고(외적 증거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는 육사의 유년 시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유년 시절의 체험이 육사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할 때, 그의 유년 시절의 체험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6연에서는 서풍이 뺨을 스치고 하늘 끝 구름 뜨는 곳의 회고 푸른 즈음을 노래한다고 했으므로 노래는 소년의 지사적 기풍이나 기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향에 대한 상실감은 시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럽게 않으며, <보기>에서 이러한 정보도 찾아볼 수 없기에 적절한 감상이 아니다. **정답 ④**

25. 추론적 사고(시구 해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은 나무가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싹을 내민 후 푸른 잎이 되기까지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며, ㉡은 나무가 온 몸으로 꽃을 피워내는 것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간결한 시에서 유사한 기능의 말을 반복한 것은 그만큼 그 과정의 시간이 길다는 것이며, 그 전후의 과정을 화자가 강조하는 것이기에 독자로 하여금 주목하도록 한다. ㉠과 ㉡ 모두 나무의 외적 변화와 내면을 동시에 주목한 것이기에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한 것은 아니다. **정답 ㉡**

26. 비판적 사고(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화자는 ㉠에서 청산을 돌아보며 흰 달을 떠올리고 마음을 비우고 있다. 또한 ㉡에서 장안을 돌아보며 복잡한 세상사를 떠올리지만 그곳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화자는 ㉠과 ㉡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지만, ㉠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때대로 ㉡의 생각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수의 종장에서 화자의 최종 선택은 ㉡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만첩’은 화자가 살고 있는 청산과 속세가 그만큼 거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7-30] 고전소설 - 남영로, ‘옥루몽’

작품해설 : 이 작품은 <구운몽>의 전체적인 구성을 따르면서도 이를 생동감 있게 개작한 소설이다. 천상의 선관이 인간으로 태어나, 사대부 남성으로서 모든 이상적인 조건을 두루 갖추고 벼슬해서 부귀를 누리며 여러 여성들의 사랑을 얻는다. 그러나 <구운몽>과는 달리 불교적인 깨달음을 내세우지 않았고 부귀와 사랑을 얻는 과정이 치열한 대결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창곡의 여러 처첩 중에서 기생인 강남홍이 적극적인 성격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데, 여기에는 신분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산촌의 한미한 선비인 양창곡이 중앙에 진출해서 권력을 독점하고 횡포를 일삼던 세력과 대결하여 승리하는 것을 통해, 일신의 부귀영화만을 추구하여 부패 타락한 생활을 서슴지 않는 통치자들의 행태와 모순으로 가득 찬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주제] 부패한 현실 정치에 맞서는 영웅의 승리

27. 추론적 사고(세부적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강남홍은 적의 두 장수에게 화살을 쏘아 갑옷만 깨뜨리고 뇌천풍에게도 칼을 날려 투구만을 깨뜨리고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고 있다. 연화봉에 올라가서는 옥피리 소리로 적진을 교란시키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보로 보았을 때 강남홍

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하고 있으며 여유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강남홍이 손삼랑과 함께 간 곳은 적진이 아니라 연화봉이라는 봉우리이다. ③ 양창곡은 꿈 내용 때문에 놀라서 꿈에서 깨어난다. ④ 양창곡이 휘하의 장수들에게나 적에게나 자신이 영웅임을 과시하는 대목은 찾아보기 어렵다.

28. 추론적 사고(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옥피리 연주의 곡조는 양창곡이 잘 알고 있는 곡조였다. 따라서 강남홍이 연주한 곡을 즉흥적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④, ⑤ 강남홍과 양창곡의 연주는 천지자연조차도 감응하게 하는 연주곡이다. 이 연주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묘사되었으며, 신비감을 불러일으킨다고도 할 수 있다.

29.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정답해설 : ㄱ과 관련하여, 14회의 제목은 이후에 있게 될 옥피리 연주를 암시하고 있다. ㄴ과 관련하여, 서술자는 뇌천풍이 강남홍에게 달려들자마자 말에서 떨어졌다고 한 다음에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다음 회를 보시라’라는 선진 문구도 사용하고 있다. ㄷ과 관련하여, 14회의 첫 대목은 13회의 마지막 장면을 자세히 반복 부연 설명하고 있다. ㄹ과 관련하여, ‘각설’이라는 상투어가 쓰이고 있다. **정답 ③**

30. 추론적 사고(사자성어의 활용)

정답해설 : ㉠에서 뇌천풍은 강남홍의 공격에 깜짝 놀라 도망하고 있다. 이미 대결이 끝난 다음에 뇌천풍이 도망가는 장면이므로 ‘사면초가(四面楚歌)’는 적절하지 않다. ‘사면초가(四面楚歌)’는 ‘사면이 모두 적에게 포위된 경우와 고립된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기사회생(起死回生)’은 ‘중병 등으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 회복됨’을 뜻한다. ③ ‘삼십육계(三十六計)를 놓다’는 ‘도망을 치다’를 뜻하며, 사자성어를 활용한 관용구이다. ④ ‘혼비백산(魂飛魄散)’은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뜻한다. ⑤ ‘이란투석(以卵投石)’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우리 속담에 대응하는 사자성어이다.

[31-32] 사회, ‘경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지문해설 : 이 글은 경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경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을 ‘제도’에 찾는 견해가 보편적

인데 이것은 제도가 경제 발달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계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 성장의 원인을 변수가 없는 지리적 조건에서 찾는 견해가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을 ‘제도’에서 찾는 경제학자들은 경제 성장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진 나라가 경제적으로 뒤쳐지는 현실을 사례로 들며 경제 발달의 주요인은 제도임을 주장하면서도, 지리적인 조건이 제도의 역전 현상을 낳는 현상에 주목해 지리적 조건을 제도를 낳게 하는 요인의 하나임을 주장한다. 한편 경제 발달의 원인을 변수가 없는 지리적 조건에서 찾는 견해 역시 제도라는 요인을 간접적인 원인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입장이 다른 학자들의 견해가 어떻게 수정되어 가면서 이론화 되는지를 살필 수 있다.

[주제] 경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31. 사실적 사고(내용 전개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보기>는 문단 별로 화제를 제시하여 글 전체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도식화하여 보여주고 있는 표이다. 지문은 <보기>에 드러나는 바와 같이 제도 결정론자의 견해, 지리 결정론자의 견해, 수정된 제도결정론자의 견해, 수정된 지리 결정론자의 견해가 문단 별로 소개되어 있다. (나)에서는 지리결정론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다. 지리결정론은 지리적 조건이 경제 발전(소득수준)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통계적 증거를 통해 주장된 견해임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증거→주장’의 관계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다)에서는 수정된 제도 결정론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다. 수정된 제도결정론자들은 지리결정론자의 생각이 실제 사례와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지리결정론의 핵심 근거를 반박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 조건은 제도의 발달 방향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경제 발달과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기존의 견해를 보강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다)는 ‘반증→주장’의 관계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정답 ③**

32.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는 지문에 제시된 여러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ㄱ은 지리적 조건(기온으로 인한 질병, 건강)이 경제 발달을 뒤쳐지게 하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나)의 지리 결정론자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사례이다. ㄴ은 제도(재산권 제도의 발달)가 경제 발달(제도에 영향을 받은 중남미의 경제 발전 낙후)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가) 제도 결정론자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사례이다. ㄷ은 지리적 조건(기후)이 제도(불평등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경제 발달(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이다. 따라서 수정된 제도 결정론자의 생각이 나타나 있는 (다)를 뒷받침하는 사례이다. **정답 ②**

[33-35] 언어, '비교 언어학을 활용한 언어의 조어 추정'

지문해설 : 이 글은 언어 간의 친족 관계를 확인하고 언어의 변화 과정을 추정하는 방법을, '외적 재구'와 '내적 재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외적 재구는 언어 간의 친족 관계를 확인하고 음운 대응 규칙을 중시하는 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조어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내적 재구는 한 언어의 자료만을 가지고 그 언어의 옛 모습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언어 변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간적·공간적 흔적들을 복원하여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어형을 추정하는 것이다.

[주제] 언어의 옛 모습을 추론하는 방법

33. 추론적 사고(글의 세부 내용 추리)

정답해설 : 언어 간의 음운 대응이 규칙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해당 언어끼리 친족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이들의 조어(祖語)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어로부터 갈라져 나온 이후 동일한 규칙에 따라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근거를 유추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해당 언어들의 친족 관계의 유사성이 확인되고 친족 관계가 입증된 후에 그 언어들의 조어를 추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으로 오래된 형태가 조어에 더 가깝다. ④ 언어들 사이에 널리 혹은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는 유사성이 아니라 그들이 친족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밖에 없는 체계적인 유사성이 있음을 밝혀내어야 친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34.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적용)

정답해설 : 언어의 변화 과정에는 시간적·공간적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다른 언어를 참고하지 않고 그 흔적을 통해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어형을 추정해 보는 방법이 내적 재구이다. 한 언어 안에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어떤 단어의 어형이 다양하게 존재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단어들의 방언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a의 경우 내적 재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언어와의 친족 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b의 경우에도, 한 언어 자료만을 가지고 옛 모습을 추정하는 내적 재구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정답 ④**

35. 추론적 사고(제시된 자료의 탐구)

정답해설 : 음운의 대응이란 같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 사이에서 한 언어의 특정 음운이 다른 언어의 특정 음운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만주어와 몽고어의 경우, '불다'와 '빌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비교해 보면 /f/와 /h/의 대응을 통해 음운 대응의 규칙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에서 음운 대응의 규칙성이 친족 관계 증명에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두 언어는 친족 관계에 있을 가능성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36-39] 기술, '우편번호 자동분류기의 학습 원리'

지문해설 : 이 글은 우편물 자동분류기가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한 글이다. 우편물 자동분류기는 다양한 데이터로부터의 '학습'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여 분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우편물 자동분류기 성능의 핵심 관건이다. 먼저 우편물 자동분류기는 다양한 필체를 보이는 우편 번호의 필체 특징을 추출하는데 이때 목표치가 주어지면(감독학습) 목표치대로 감지해 내게 되고 필요한 조건(함수)에 의해 분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 과정에서 목표치가 설정되기 어려운 경우(무감독학습)에는 입력 특징들을 함수를 통해 군집화하여 분류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 글을 통해 사람의 필체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정보화하여 처리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주제] 우편번호 자동분류기의 정보 처리 원리

36. 사실적 사고(내용 일치)

정답해설 : 4문단에서는 우편물 자동분류기가 작업을 수행할 때 목표치가 없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목표치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우편물 자동분류기는 다양한 데이터의 특징을 유사성에 근거해 군집화하여 인식한다고 했다. 따라서 ⑤는 목표치가 없는 경우의 우편물 자동분류기의 학습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알맞은 내용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자동분류기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으므로 양과의 연관성이 있음이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② 본문에서 목표치의 설정 여부만 나와 있지 목표치의 개수나 종류는 알 수 없다. ③ 자동분류기의 학습은 다양한 필체의 특징을 추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일정한 종류의 숫자를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 ④ 2문단에서 자동분류기는 숫자의 입력 특징을 찾아 그 숫자만의 특징을 추출하는 방식을 이용함을 알 수 있다.

37.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적용)

정답해설 : 1문단에서 학습은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 작용 정도에 따라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단순히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에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또 2, 3문단을 통해 학습은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여 목표치에 맞춰 스스로 익히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①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입력되는 데이터를 저장된 데이터와 대조하는 것으로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 작용,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는 과정을 찾을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휴대 전화를 든 손으로 공중에 쓰는 것은 다양한 필체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인식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추론과 관계가 있는 작업이다. ③ 사용자의 음성 특징은 환경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추출하여 분류하는 것은 본문의 학습 개념과 관계 깊은 것이다. ④ 휴대 전화에서 손이 닿는 형태는 다양할 수 있는데 이를 유형화한다는 것은 학습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⑤ 사람의 움직임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 얼굴을 색상값이라는 특징으로 추출해 내고 변한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것은 학습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38.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2, 3문단에서 우편번호 자동분류기는 데이터로부터 입력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하게 되는데 이때 목표치가 제시되면 데이터를 제시된 목표치로 분류해 학습하여 분류 작업을 수행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학습의 과정을 통해 함수를 만들게 되며 최종적으로 분류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④는 이와 같은 순서와 과정을 잘 구조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정답 ④**

39. 어휘·어법(고유어와 한자어의 유의 관계 파악)

정답해설 : 문맥으로 보아 ㉠은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한데 합친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취합(聚合)’은 ‘모여서 합친다. 또는 한데 모아서 합친다.’는 뜻으로 ㉠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융합(融合) : 여럿이 녹아서 하나로 합침. ③ 조합(組合) : 여럿을 한데 모아 한 덩어리로 짬. ④ 규합(糾合) : 일을 꾸미려고 사람을 모음. ⑤ 결합(結合) : 둘 이상이 서로 관계를 맺고 합쳐서 하나가 됨.

[40-43] 현대소설 - 이청준, ‘잔인한 도시’

작품해설 : 이 작품은 현대 사회의 근원적 속성을 예리하게 파헤친 작품이다. 이 작품에 나오는 도시에는 새를 파는 ‘방생의 집’과 교도소가 있다. 교도소에서 나온 ‘사내(노인)’는 새 가게 주인이 새의 날개 안쪽 깃털을 조금 자른 뒤, 돈을 받고 새를 놓아주는 것을 본다. 날개가 잘렸기 때문에 새는 멀리 날아가지 못한다. 밤이 되면 주인은 다시 새를 찾아 잡아서 낮에 다시 판다. 새는 낮에는 자유로이 날아갔다가 밤이 되면 다시 붙잡히는 삶을 반복한다. 여기서 날개는 자유를 상징한다. 자유를 억압당하는 새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에 나오는 ‘도시’는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잔인한 곳이다. 이 작품에 나오는 ‘사내’는 출옥과 투옥을 반복하는 인물이며, ‘새’는 자유롭게 날아갔다가 다시 새장에 갇히기를 반복하는 대상이다. 즉 ‘사내’와 ‘새’에게는 조작된 해방과 구속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결말 부

분에서 ‘사내(노인)’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남쪽의 고향을 향해 걸어간다. 그곳은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힘이 존재하지 않는 곳, 도시와는 달리 진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곳을 의미한다. 이 작품은 이처럼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로서 상징성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주제] 현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시의 비정한 속성에 대한 비판,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고귀한 인간성에 대한 열망

40.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교도소에서 출옥한 ‘사내(노인)’는 교도소에 남아 있는 친구(동료)들을 위해 새장수에게 새를 사서 방생하는 일을 하기 위해 공원 벤치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새를 파는 가게의 젊은 주인은 ‘사내(노인)’를 차갑고 냉정하게 대하지만 사내(노인)는 매일 새를 사서 날려 보내는 일을 계속해 간다. 그런데 새들이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도대체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품고 그 일을 이해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된다. 그러던 중 밤마다 전깃불빛을 앞세운 새 사냥꾼이 새 사냥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어느 날 밤 쫓기던 새 한 마리가 벤치에서 노숙하던 사내(노인)의 품 속으로 숨어들어 오게 되면서 사내의 궁금증은 더욱 심화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인물(=사내 혹은 노인)이 새 사냥에 대한 추리 과정을 통해 ‘이상스런 일’의 내막을 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사건의 의미를 탐색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작품에서 사건은 주로 새 가게와 공원의 숲에서 벌어지고 있으므로 장면의 빈번한 전환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다. ② 제시된 지문 내에서는 주로 현재를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④ 인물 간의 대화보다는 독백이 많다. ⑤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공원의 숲과 벤치, 새 가게 등인데, 제시된 지문에서는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한 대목을 찾을 수 없다.

41. 추론적 사고(인물의 행동의 이유 추리)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사내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여 새장수 젊은이의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새 가게 주변을 맴돈다. 사내는 지금 교도소에 남아 있는 친구들을 위해 새장수에게 새를 사서 방생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교도소에 있는 친구(동료)들 모두를 위해 빠짐없이 한 마리씩 새를 사서 방생하는 일이 바로 그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렇게 교도소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서처럼 젊은이의 비웃음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사내가 거쳐하는 곳은 새 가게가 아니라 공원의 벤치이다. ② ‘젊은이’에게 무언의 항변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단서가 없다. ④ ‘젊은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다. ⑤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젊은이’의 말에서만 나타나고 ‘사내’가 정말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다.

42. 비판적 사고(외적 준거를 활용한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여기 제시된 지문은 인물이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를 발견하고 자각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고, 아직 현실의 횡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졸음기가 말끔히 달아나 버린 사내’가 ‘모른 채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 없는 것은 놀라움에서 안도에 이르는 정서 변화 과정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럽고 생리적인 현상일 뿐이므로, 이를 통해 현실의 횡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를 확인할 수는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공원 숲 속을 훑어 대기 시작’하는 전깃불빛은 새 사냥꾼이 새 사냥을 하는 장면에 해당하므로 ‘공원 숲 속’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 새들의 모습은 억압적인 세계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어둠’의 부정적 이미지로 볼 때 사냥꾼에 쫓긴 ‘밤새들이 낙엽처럼 어둠 속을 휘날리’는 장면은 현재의 공간이 부정적인 공간이 되는 것을 상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새들이 낙엽처럼 빛을 맞고 떨어져 내리는’ 상황은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의 결과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43. 추론적 사고(어구의 문맥적 의미 추리)

‘그런 사연’은 ‘새들이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 사연’이다. ‘사내’가 ‘그런 사연’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우선 밤에 발생하는 새 사냥(㉞)의 본질이다. ㉠, ㉡는 모두 ‘밤새 사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는 ‘밤새 사냥’의 결과로 일어난 새들의 행동(숲을 떠나지 못하고 다시 붙잡혀 돌아오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는 ‘사내’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이다. **정답 ③**

[44-47] 예술,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

지문해설 : 이 글은 작품의 생성과 전개에 수용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예술적 시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종래의 예술에서는 수용자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술 감상을 미적 관조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예술관에서는 작품과 수용자 각각의 상호 작용의 고유성이 보호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전체 속에서 통일되는 미적 체험에 대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존 듀이는 이러한 통일성에 대한 체험을 미적 체험으로 간주하며 ‘예술의 세속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주제]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예술적 시도가 갖는 의의

44. 사실적 이해(글의 세부 내용 이해)

정답해설 :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은 각각의 고유성이 보호되면서도 예술 작품 속에서 상이한 요소, 행동, 사건, 주체들이 하나의 통일성을 이룰 때 가능하다. 따라서 ①과 같이 수용자가 완결성을 갖는 작품을 변형하며 감상하는 것은, 수용자 위주의 감상이므로 상호 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45. 비판적 사고(비판적 반응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보기>에서 쇼펜하우어는 맹목적 충동의 연쇄 작용으로 인해 인간은 불만족과 갈등에 시달리게 된다고 보았다. ‘미적 관조’는 이런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보았다. 이는 예술을 현실의 모든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해방 공간으로 보는 것이다. 이같은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고통과 갈등을 예술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바라보는 ‘예술의 세속화’는, ‘미적 관조’를 현실 세계로 확산시켜 삶의 통일성에 대한 미적 체험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②‘예술의 세속화’가 예술의 순수성을 깨려는 것은 아니다. 작품과 수용자 각각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있다. ③‘예술의 세속화’는 인간과 예술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며, 미적 체험이 예술 작품 속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룰 때 가능하다고 했다.

46.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존 듀이는 대립되고 분열된 일상의 수많은 상호 관계와 경험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미적 체험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수용자의 일상과 미적 체험이 상호 작용하는 사례를 찾아야 한다. ⑤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반지의 이미지가 과거 아내와의 체험을 떠올리게 하여 수용자가 삶과 작품 공간이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작품이 강조되고 있다. ②세상의 관심에서 벗어난 것 같다는 수용자의 느낌이 강조되고 있다. ③컴퓨터 기술이 발전한 것에 대한 수용자의 감탄이 추가 되고 있다. ④스크린에 등장한 이미지가 일상생활의 맥락에서와 달리 신비스런 느낌을 주고 있다고 했다.

47. 어휘·어법 (어휘의 사전적 의미)

정답해설 : ‘부단하다’는 주로 ‘부단한’의 형태로 쓰이며, ‘꾸준하게 잇대어 끊임이 없다’는 의미를 지닌다. 정답 ④

[48-50] 희곡 - 함세덕, '동승'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도념이라는 한 동승이 속세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려낸 것으로 어머니를 향한 도념의 간절한 그리움과 기다림, 좌절이 간결한 극적 구조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미망인에게 입양되기를 바라던 도념의 소망이 좌절되자 도념은 어머니를 찾아 속세를 향해 떠나기로 한다. 종교적 계율보다는 자유와 희망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한 도념의 행동은 작가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 불교적 가르침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사이의 갈등

48. 비판적 사고(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는 희곡에서 대화, 방백, 독백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독백이란 배우가 심리적으로 자극을 받아 촉발된 혼잣말이라 했다. 그런데 도념이 초부와 헤어진 후에 혼잣말을 한 것은 독백은 맞으나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주지 스님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② 도념이가 떠나겠다는 것을 말리던 초부는 도념의 결심이 이미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가려거든 빨리 가라며 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다. ⑤ 독백을 한 후 도념은 동리를 내려다보고 길게 한숨을 쉬며, 떠나면서도 산문을 돌아다보고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 도념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49. 추론적 사고(극의 장르적 특성 이해)

정답해설 : 도념은 떠나기로 결심을 하면서도 주지 스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잣을 한 움큼 꺼내 산문 앞에 놓으며 스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다. ㉠은 도념이 절을 떠나는 상황에서 들리는 소리이다. 그러므로 이 소리는 도념과 주지의 정서적 교감을 보여주기보다는 도념의 미안한 마음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절임을 알 수 있다. ② 등장인물인 초부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관객 역시 이 소리에 집중할 것이다. ③ 은은하게 들리던 종소리가 그치며 도념이 등장하고 있다. ④ 초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는 도념에게 들린 소리이다. 이 소리에 도념은 발길을 돌려 혼잣말이지만 스님에게 마음의 인사를 하고 떠난다.

50. 추론적 사고(어휘의 상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절을 떠나기로 한 도념은 비탈길로 내려가고 있다. 그러데 이 비탈길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비탈길이 벗어남의 속성을 지닌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것이 절에서 살았던 지난날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던 절이라는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속세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